

첫 통일국가 고려의 성립과 그 의의

김 은 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였다.》(《김정일전집》 제2권 161페이지)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918년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어 936년에 국토가 통일됨으로써 그 실현을 보게 되였다. 결국 고려의 성립은 국토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점을 이룬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려의 성립과 그 의의를 밝히는것은 고려와 고구려의 계승관계와 국토통일 문제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 글에서는 고려성립의 사회력사적배경과 성립과정, 그 의의를 고구려와의 계승관계 그리고 국토통일의 견지에서 자료적으로 해설론증하여 고려의 성립이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히려고 한다.

우선 고려의 성립은 일정한 사회력사적배경속에서 진행되였다.

고려성립의 사회력사적배경은 첫째로, 당시 인민들속에서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는 지향이 크게 높아진것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가 668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친 후 698년에 그 계승국인 발해가 성립되어 해동성국으로 발전하였지만 10세기초에 들어와 봉건통치배들의 안일과 권력싸움의 후파로 급격히 약화되고 거란의 침략으로 하여 위협에 처하게 되였다. 한편 후기신라는 9세기말에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농민폭동군의 지휘자로 나섰던 궁예와 견훤이 농민폭동군의 성과를 가로채어 태봉국, 후백제를 세움으로써 후삼국으로 분열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의 존망이 심히 우려되는 엄중한 정세가 도래하였다.

10세기초의 이러한 정세는 지난날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9세기말 농민전쟁의 지휘자로 자처하였던 궁예가 중부조선의 립진강, 레성강, 한강일대의 넓은 지역을 차지한 큰 세력으로 자라나 901년 정식 왕이 되자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 고려라고 정한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궁예가 나라이름을 후고구려, 고려라고 한것은 옛고구려의 남부지방에서 살고있던 주민들이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세울것을 강력히 지향해나섰기때문이었다. 궁예는 이 지역 인민들의 이러한 민심을 리용하여 국호를 후고구려, 고려라고 하고 자기 권력지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10세기초에 후기신라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되었던것이다.

왕건이 918년에 나라를 세운 후 고려라고 이름지은것*은 건국직전에 고구려를 계승한 강대한 나라를 세울것을 바라는 민심이 강하였음을 엿볼수 있게 한다.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원년 7월

고려성립의 사회력사적배경은 둘째로, 인민들속에서 국토통일의 지향이 높아진것이다.

당시 우리 민족은 국토통일을 강력히 지향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정세와 관련된다.

10세기초 후삼국의 출현으로 권력을 쥔 봉건통치배들의 영토확장책동으로 말미암아 호상간 전쟁과 싸움이 많이 벌어진 결과 동족끼리 많은 희생을 내고 살림집 및 농경지 등이 심히 파괴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실례로 901년 후백제왕 견훤이 후기신라의 대야성(경상남도 합천군)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게 되자 금성(전라남도 라주)남쪽으로 군사를 옮겨 주변부락들을 략탈해가지고 돌아갔다*고 한다.

*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효공왕 5년 8월

태봉국(고려, 마진이라고도 함.)은 903년에 후백제의 금성 등 10여개 군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904년 후기신라의 패서도(황해도) 10여개 고을을 공격하여 통합하였으며 905년 후기신라의 죽령동북지방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태봉국군대가 906년 경상북도 상주 사화진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였고 907년 후백제군대가 후기신라의 승선군(경상북도 선산)이남 10여개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으며 909년 태봉국의 수군이 후백제의 진도(경상남도 해남)와 고의도를 공격점령하였다.

태봉국수군이 910년 라주성에서, 912년 태봉국군이 덕진포(전라남도 영암)에서 후백제군을 각각 격파하였으며*¹ 916년에는 후백제군이 대야성을 공격하다가 패배당하였다.*²

*^{1,2}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효공왕 14년, 16년, 신덕왕 5년

후삼국시기 끊임없이 벌어진 전쟁은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었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동족끼리의 전쟁과 싸움을 반대하고 통일된 강토에서 민족의 발전을 이룩할것을 강력히 지향해나섰다. 태봉국 말년에 궁예의 반대파들이 왕건이 앞으로 삼국을 통일할 인물이라고 암시하는 《도참설》들을 널리 퍼뜨린 사실들도 그 일단을 보여준다.

신라의 감간 팔원이 풍수에 능하였는데 그가 부소산(송악산)의 생김새를 보고 강충(왕건의 4대조상)에게 말하기를 부소산남쪽으로 군을 옮기고 소나무를 많이 심어 이 산의 바위들을 다 감추면 반드시 여기서 삼한(전체 조선을 가리킴)을 통합할 인물이 날것이라고 예언하는 이야기를 꾸며내여 퍼뜨렸다*고 한다.

* 《고려사》 고려왕실세계

이 자료는 왕건이 조상을 신비화하고 내세우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속에서 국토통일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높아가고있었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918년 3월 후량(중국)의 상인 왕창근이 우리 나라에 무역하러 왔다가 철원의 저자(장마당) 한가운데서 웬 사람을 만나 그에게서 거울을 사서 저자담벽에 걸어놓으니 해빛이 비칠 때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보였다고 한다. 《삼사증과 사유(동서남북)아래 옥황상제가 <진마>에 아들을 내려보냈다. 먼저 닻을 잡고 뒤에 오리를 칠것인바 이를 일러

운수가 일삼잡에 찻다고 하는것이다. …〈사〉년에 두 룡이 나타나서 그 하나는 〈청목〉속에 몸을 감추고 다른 하나는 〈흑금〉동쪽에 형체를 드러내리.》*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당시 글을 잘 해석하는 송사홍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삼수중과 사유아래 옥황상제가 진마에 아들을 내려보냈다.〉는것은 진한, 마한의 뜻이요. 〈사년에 두 룡이 나타나서 그 하나는 청목속에 몸을 감추고 다른 하나는 흑금동쪽에 형체를 드러내리.〉라는것은 청목이 소나무이므로 송악군사람으로서 〈룡〉으로 이름을 삼은 사람의 자손이 임금이 되리라는 말이다. 왕시중(왕건)이 왕으로 될 기상이 있는데 아마 그를 두고 가리키는 말일것이다. 그리고 〈흑금〉이라는것은 철인데 그것은 수도 철원을 의미하는것이다. 궁예왕이 처음 여기서 일어났는데 결국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일것이다. 〈먼저 닭을 잡고 오리를 칠것〉이라는것은 왕시중(왕건)이 임금이 된 후 계림(신라)을 점령하고 다음에 압록강연안까지 회복하리라는 뜻이다.》

송사홍의 해석에서 보는것처럼 태봉국 말기에 정세는 궁예가 폭정으로 멸망하고 왕건이 왕이 되며 왕건의 지지자들이 크게 자라나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에 편승하여 국토통일을 중요하게 내세웠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려성립직전에 인민들의 통일열망이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힘으로 자라나고있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이 고려는 당시 인민들속에서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는 사회력사적배경속에서 성립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고려성립은 정변의 방법으로 단행되었다.

이 시기 궁예의 폭정으로 태봉국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피해는 더욱 컸다.

후에 왕이 된 왕건이 내린 조서에 태봉국 말기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전 임금(궁예)은 …전국을 통일하기도 전에 대번에 혹독한 폭력으로 아래사람들을 대하며 간사한것을 높은 도덕으로 생각하고 위압과 모멸로 요긴한 술책들을 삼았다. 부역이 번거롭고 과세가 과중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은 평장히 크게 지어 제도를 위반하고 그에 따르는 교역은 한이 없어서 드디어 백성들의 원한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한것은 당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6월 정사

궁예의 횡포한 권모술수와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은 인민들의 분노와 반항심을 분출시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배층에까지 퍼져갔다.

원래 의심이 많고 성내기 잘하며 포악하기 그지없는 궁예는 자기가 《미륵보살》의 화신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볼수 있다는 《미륵관심법》을 체득하고있다고 하면서 많은 신하들을 《반역》으로 몰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

* 《삼국사기》 권50 렬전 궁예

궁예의 이러한 《미륵관심법》에 의해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쓰러졌다.

궁예는 부하는 물론 자기 처자까지 잔인하게 죽이였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있던 금, 은, 보물 등을 모조리 회수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 지어 부녀자들까지 궁예를 무서워하고 증오했으며 그를 몰아

내는데 합류하게 되었다.

왕건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는데 겁을 먹은 궁예는 그를 그냥 두면 자기 권력과 신변이 위험하다는것을 느끼자 《미륵관심법》을 써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최웅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궁예와 크게 대립되게 되었다.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그후 라주일대에 가서 다년간 정변을 일으킬수 있는 군사적 및 물질적준비를 갖춘 왕건은 918년에 이르러 태봉국안에서 무시할수 없는 큰 세력으로 되었다. 6월 초경에는 궁예의 세력이 매우 약화된 반면에 왕건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드디어 이해 6월 중순 왕건은 측근자들인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등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다. 간단한 모임을 끝낸 후 왕건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왕궁으로 쳐들어갔는데 수도와 그 주변의 1만명의 인민들이 합세하였으며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왕궁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궁예는 《왕공(왕건)이 벌써 승리를 얻었는데 내 일은 글렀다.》라고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후 궁예는 의지할 사람도 거처지도 없어 산골로 도망쳐서 곡식이삭을 훔쳐먹으며 연명하다가 부양(강원도 평강)에서 그곳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왕건에 의한 고려의 성립은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진다.

고려성립의 역사적의의는 첫째로, 고려가 성립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확고히 이어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으로서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

고구려는 수십~수백만의 외래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쳐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널리 시위하였고 민족의 지향인 삼국통일을 다그쳐 5세기말~6세기초에 우리 나라 전체 영토의 90%를 차지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놀았다.

고구려가 무너진 후 그 계승국인 발해의 출현으로 고조선, 고구려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는 발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발해가 10세기초에 약화되다가 926년에 무너진 후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거쳐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918년에 형성된 고려에 의해 확고히 계승되었다.

고려가 옛고구려의 남부지방에서 왕건을 비롯한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국호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한것은 그 계승국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제1차 반거란전쟁을 결속한 고려-거란담판에서 고려대표 서희는 거란이 고구려의 옛땅을 내놓으라는 적들의 부당한 요구에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단것은 그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적들의 부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

* 《고려사》 권94 려전 7 서희

서희가 담판에서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때문에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고 뽀뽀이 선언한것은 당시 고려사람들이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것을 명백

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결국 고구려의 계승국인 고려의 성립으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게 되었다.

고려성립의 역사적의의는 둘째로,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여 국토통일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는데 있다.

고려는 918년 성립후 고구려의 통일정책을 계승하여 대동강이남의 후백제, 신라와 함께 그 이북의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아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는것을 통일정책으로 내세웠다.

14세기초 리제현이 태조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사찬한것은 그 단편적인 실례이다.

《태조 26년(943년) 우리 나라 태조가 즉위한 후 김부(후기신라의 마지막왕)가 항복하지 않고 견훤(백제왕)이 포로되기 전에 서도(평양)에 행차하고 직접 북방을 순찰하였는데 그 뜻은 역시 동방의 옛땅(고구려땅)을 우리 나라의 령토로 확신하고 반드시 휩쓸어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어찌 닭을 잡고(신라를 치고) 오리를 치는데(압록강까지 차지하는데) 그치였겠는가.》*

*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26년 리제현찬

이것은 고려가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을 이어받았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이어받았을뿐아니라 국토통일을 실현하였다.

고려는 포섭정책으로 주변의 봉건세력들을 복속시키고 서경(평양)을 중심기지로 꾸려 북방진출을 다그쳐나갔다. 926년 발해가 멸망하자 그 유민들을 적극 포섭하고 북방진출을 계속 다그치였다.

한편 고려는 북방에서 힘이 강화됨에 따라 남방진출에 힘을 넣어 후기신라는 끌어당기고 반항하는 나라인 후백제는 계속 공격하여 936년 국토통일을 이룩하였다.

결국 동족의 나라들을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 민족의 지향을 실현하는데서 고려의 성립은 그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었다.

고려성립의 역사적의의는 셋째로,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점이 마련되었다는데 있다.

고려는 936년 통일후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였다.

고려는 통일된 민족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10세기말~11세기초 거란의 세차례의 공격을 물리치고 민족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였으며 전후 경제와 문화,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고려자기, 고려비단, 고려먹 등으로 불리우는 천하의 명물들을 생산하고 12세기 전 반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가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성립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가 세워지고 국토의 통일과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실마리어 통일지향, 계승국